

# 반도체

## 中 범용 반도체 규제, 韓 긍정적

### 미국, 내년 1월 중국 범용 반도체 조사 착수

—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미국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100개 이상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산 범용 반도체 (레거시 칩: legacy chip) 사용 의존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2/22, Bloomberg). 이번 조사 목적은 미국 내 중국 범용 반도체 관세 부과를 통해 덤핑과 침투를 막아 태양광과 철강산업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미 반도체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 탈 (脫) 중국 전략: YMTC, CXMT, SMIC 부정적

— 상무부는 이번 범용 반도체 조사 내용을 반도체법 (Chips Act) 보조금 지급 결정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또한 미 방산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향후 미국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추가 조치가 없다 해도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해 중국 반도체 조달 비중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여 중국 반도체 업체인 YMTC (낸드), CXMT (D램), SMIC (파운드리) 수출 확대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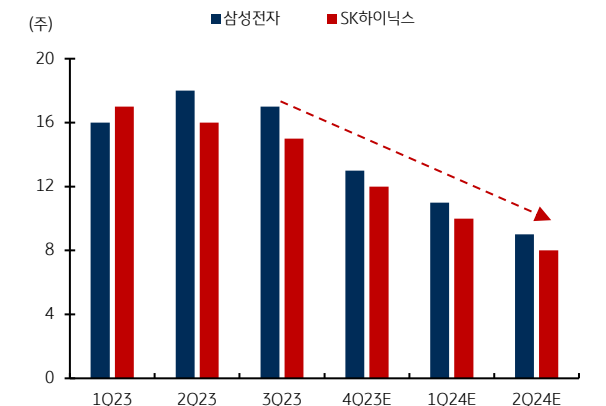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년 하반기 가파른 실적 개선 기대

— 만약 내년 미 상무부가 중국 범용 반도체의 추가 수출규제 현실화를 가정하면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범용 반도체 (레거시 D램, 낸드) 재고 소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이번 미국의 조치는 중국 현지 반도체 기업 (YMTC, CXMT, SMIC)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반도체 수급을 고려한다면 중국 현지 공장을 운영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예외 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 4분기부터 대부분 미국 기업들은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와 상관없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산 비중을 크게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낸드 가격 인하를 통한 점유율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YMTC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해 합산 기준으로 20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 효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흑자 전환이 전망되어 이미 흑자전환에 성공한 D램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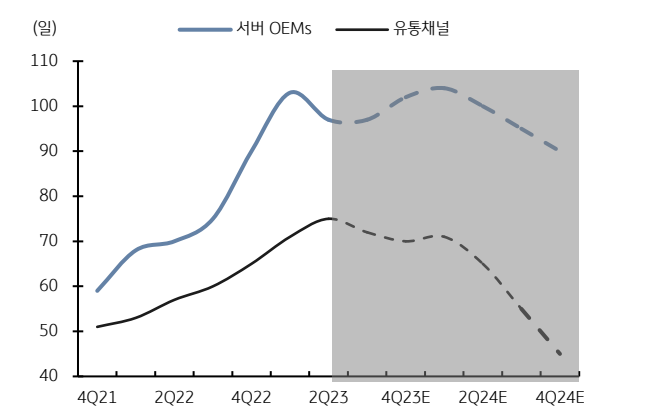
더 많은 리포트 보기

그림 1. 내년 2분기 재고 정상화 전망



자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증권 추정

그림 2. 고객사 및 유통채널 반도체 재고 감소세



자료: KB증권 추정



## 투자자 고지 사항

---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삼성전자]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SK하이닉스]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